

산업보건정책을 위한 사업전개

소장 최득소

당지방사무소관내는 청주시외 청원군·진천·괴산·보은·옥천·영동군등 6개군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장 및 지역적여건을 보면 소규모의 영세사업체로 편중되어 있어 50인미만 업체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전체의 59%의 사업체가 청주시에 공단을 구성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볼 때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및 사회서비스업이 50%나 되어 산업보건관리에 있어서의 행정대상 사업장은 빈약한 편이다.

○ 관내 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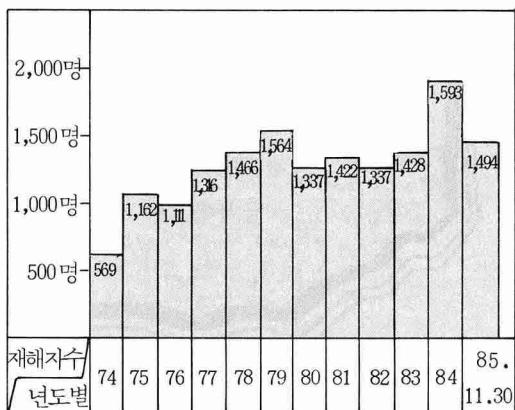
구분 규모별	사업장수	근로자수	비율 (사업장수)
계	1,201	57,510명	100 %
5~9인	475	3,759명	39.6 %
10~15인	211	2,611명	17.6 %
16~49인	339	9,712명	28.2 %
50~99인	84	5,894명	7.0 %
100~499인	76	14,993명	6.3 %
500~999인	10	7,279명	0.8 %
1,000인 이상	6	13,262명	0.5 %

그러나 차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대상업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와 사업이 점차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당지방사무소 관내의 사업장 구성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지방사무소는 점차 증가되어가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유발의 감소를 위한 당면시책으로서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간 당관내의 재해현황을 매년 파악 비교

○ 연도별 재해추이



하여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구코자 하고 있다.

또한 각사업장에서는 안전담당자와 보건담당자를 배치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여 현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대상사업장의 약 85%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 관리를 요하는 대상사업장에 전원배치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 재해예방

구분 년도	적용 대상		재해자				비고
	사업장수	근로자수	계	사망	부상	직업병	
'84	1,167	56,859	1,593	15	1,578	72	직업병자수는 검진결과 유소견자임.
'85.11.30	1,201	66,158	1,494	19	1,475		

○ 건강진단

구분	'84 실적		'85. 11 월말 현재					
	사업장	근로자	대상		실적		미실시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계	356	37,380	383	38,849	424	39,684		
일반검진	312	33,263	339	34,732	347	35,265		
특수검진	44	4,117	44	4,117	77	4,419		

◎ '86년도 사업방향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당관내 대상사업장 136개소를 중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관리책임자를 배치하도록 지도하여 미배치 사업장 일소에 노력할 방침이다.

○ 유해물질관리 및 작업환경측정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유해물질 신고제도를 홍보하여 미신고 업체에 대한 지도와 아울러 특수검진실시 사업장을 비롯 소음, 분진, 유기용제, 연, 특정화학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소속근로자의 보호구 착용과 안전장비를 구비 사용토록 하고 작업환경조성 및 개선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하여 작

업환경측정을 펼히 이행토록 촉구하며 정기 및 수시로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예방을 기하고자 한다.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도

당지방사무소에서는 '86년도 건강진단실시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 검진미실시업체 및 누락검진자가 없도록 함과 검진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사후관리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진폐 대상 15개업체의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끝으로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각종 질병 및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코자 힘쓰는 정부시책에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스스로의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